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호평'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글로벌 축제에 걸맞는 국보급 민속·문화 예술과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마련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개최되는 제40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를 주제로

고군면 회동리 일원서 내일까지 개최해 국보급 민속문화 공연·풍성한 체험 등

특히 군민 등 300여명이 참가하는 '신비의 땅을 울려라 북놀이 퍼레이드 등 화려한 거리 퍼포먼스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9일 새벽 4시 30분부터 '바닷길 햇살 퍼레이드'가 뽕할머니 동상 앞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가계해변에서는 무지개가 생기면서 바닷길이 열렸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지개색 파우더를 던지며,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가원하는 퍼포먼스인 '컬러풀 진도' 행사도 함께 열린다.

또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워터 슬라이드를 활용한 버블퐁(거품) 슬라이드 체험이 오후 2시부터 실시되며, 저녁 8시에는 레이저 미디어쇼가 열리고 글로벌존에서 외국인 락밴드와 디제이소, K-POP 퍼포

먼스가 열리는 EDM 율나잇 스탠드쇼 등이 화려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천연기념물 제3호 진도개의 수준 높은 공연을 비롯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진도군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꽃을 활용한 포토존과 명인에게 배우는 서화·서예, 뽕할머니 소망등 달기, 뽕할머니 신호호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상시 개최하고 있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올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신비로운 체험과 만남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에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정자(亭子) 세웠다

### 신지면 문화센터 옆 햇살마루 건립 준공식

정자(亭子)는 그동안 어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으나 국내 최초로 어린이 전용 정자가 완도에 세워져 눈길을 끈다.

완도군은 신지면 문화센터 옆에 어린이 전용 정자인 햇살마루를 건립하여 17일 신지면 어린이와 어른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햇살마루는 살기 좋은 신지면 만들기 운동 일환인 어린이가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했다. 규모는 약 9㎡(3평)이며 목조, 기와로 지었다.

햇살마루 주변 165㎡에는 안전 매트도 깔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에도 독서와 놀이문화를 즐기고 와이파이도 구축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현 신지면장은 "햇살마루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고운말 바른말을 듣고 말하는 공간이 되어 미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초등학교 4학년 김주빈 어린이는 "정자는 어른들만 이용하는 시설인줄 알았는데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정자가 생겨 신기하고 기쁘다며 친구들과 매일 이용하겠다"며 기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이순신 유적 따라 여수역사 배운다"

### 여수시, 생생문화재 사업 시작...11월까지 8700만원 투입

여수시가 이순신장군 유적지를 활용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역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생생문화재 사업이 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진남관, 중민사, 선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이며 '밤비하라, 1592', '여민동락(與民同樂)', '조선수군 불결투어', '꿈꾸는 승리의 바다' 등 4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9일 첫 선을 보이는 '밤비하라, 1592'는 이순신장군의 유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한려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40여명이 고소대, 타루비, 선소,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등을 탐방할 계획이다.

활쏘기, 거북선 퍼즐 맞추기, 효도편지 쓰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에서 시립국악단과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첫 공연은 6월 5일이다.

거북선을 타고 바닷길을 체험하는 '조선수군 불결투어'는 7월



20일부터 총 3회, 문화재 보수 기술자와 고고학자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꿈꾸는 승리의 바다'는 9월 11일부터 5회 예정돼 있다.

이번 생생문화재 사업에는 국도비와 시비 등 8700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활용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사업"이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고교 통일골든벨 예선대회 개최

### 민주평통 장흥군협, 장흥고 1~2학년 등 200여명 참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회장 위수미)는 지난 16일 장흥고등학교 강당에서 '2018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골든벨 예선대회에는 장흥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고등학생 통일골든벨은 오는 5월 31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남지역본선대회에 출전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예선대회다.

장흥군에서는 관내 3개 학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관산고등학교와 한국말산고등학교에서는 자체 선발을 통해 2명의 전남지역본선대회 진출자를 이미 선발했다.

위수미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통일골든벨 대회에 참가하는 장흥고 학생들 모두가 다같이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열기를 이어 전남지역본선대회에서도 우리 장흥군 고등학생들이 골든벨을 차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 무안군, 최신 항공사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

무안군은 2017년 최신 항공사진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안군공간정보시스템'은 무안군이 2009년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내부행정용 시스템으로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위치 정보, 지적(임야)도, 용도지역지구도와 같은 도형정보와 토지 속성정보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전 직원에게 제공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군은 2013년부터 홀수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할 추진함으로써 최신 공간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에 착수해 군이 자체 구입한 2008년, 2009년, 2011년 항공사진을 포함하여 2013년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들을 관리하는 기능과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정보와의 연계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도별 항공사진 영상정보의 비교·분석이 용이해지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정보 등의 토지정보 연계로 실시간 토지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보다 다양한 업무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